

# 새털처럼 가볍게 즐겨라... 디코이 페더웨이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저칼로리·저알코올 와인

화이트 와인 한 잔, 140ml의 칼로리는 보통 120kcal다. 한 병으로 따지면 약 640kcal다.

그럼 30%만 다이어트를 시켜보자. 와인 한 잔이 80kcal로 가벼워지면 한 병을 다 마셔도 430kcal다. 200kcal가 넘게 줄었다.

저칼로리 와인으로 자전거 타기 30분 혹은 조깅 20분을 한 효과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관건은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와인의 맛이나 아로마가 희생되었는지 여부다.

덕훈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는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저칼로리 와인 '디코이 페더웨이트 소비농 블랑 (Decoy Featherweight Sauvignon Blanc·이하 페더웨이트)'을 소개하며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알코올, 저칼로리 와인을 찾는 트렌드가 일시적이 아니라 공고화되고 있다"며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과 같은 포도를 사용해 일관된 품질과 맛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덕훈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가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디코이 페더웨이트 소비농 블랑'을 비롯해 덕훈 와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이와 함께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알코올, 저칼로리 와인을 찾는 트렌드가 일시적이 아니라 공고화되고 있다"며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과 같은 포도를 사용해 일관된 품질과 맛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와인 뿐 아니라 전체 주류 업계의 거



'디코이 페더웨이트 소비농 블랑' 한 잔의 열량은 80kcal로 평균 화이트 와인보다 30% 이상 낮다. /나라셀라

스릴 수 없는 흐름이 저칼로리, 저알코올 혹은 무알코올이다. 미국에선 이미 이런 스타일을 묶어 '당신에게 더 좋은 와인(Better For You·BFY)'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덕훈이 저칼로리 와인을 선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엔 소비농 블랑과 샤도네이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만

2종 내놨지만 저칼로리 레드와인도 출시할 계획이다.

페더웨이트 2023 빈티지는 레몬과 라임의 시트러스에 잘 익은 복숭아 향까지 손색이 없다. 입에서는 소비농 블랑 특유의 산미가 선명하며, 여운도 길게 남는다. 와인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니 알코올이 빠져서 더 밝고 깔끔해졌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와인 평가 대회에서 페더웨이트는 5위에 올랐다. 저칼로리 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전체 소비농 블랑 품종 가운데서 말이다.

팩트 체크를 해보자.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야 한다.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이 알코올 도수가 13.9도인데 페더웨이트는 9도까지 낮아졌다. 한 잔 기준 칼로리는 80kcal, 지방은 0g이다.

칼로리를 낮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맛과 향을 지키면서 말이다. 자연적으로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 포도를 좀 더 일찍 수확하거나 양조과정에서 발효가 100% 되기 전에 중단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의미있게

저알코올이라고 할 만한 와인을 만들기는 어렵다.

페더웨이트는 일단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과 똑같이 만든다. 그다음 일부를 진공증류기법을 이용해 알코올을 분리하고, 원래의 소비농 블랑과 섞는 방식이다.

칼 이사는 "알코올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 번의 프로세스를 거칠 경우 와인의 아로마나 풍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덕훈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저에서 한 번에 알코올을 분리해 저알코올 와인이라도 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덕훈 포트폴리오의 나과벨리를 기반으로 한 덕훈 빈야드에서 출발해 이제는 10개 와이너리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 최대 와인 브랜드 중 하나다. 덕훈 빈야드가 신세계 밀렛 와인의 기준점을 만들었다면 디코이는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며 와인애호가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간 와이너리다. 덕훈 포트폴리오 전체 생산량의 70%를 바로 이 디코이가 차지한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연주자 시선으로 무대 뒤 경험... 롯데 콘서트홀 '스테이지 투어'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콘서트홀의 각종 시설과 무대 뒤 숨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는 스테이지 투어를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6회 진행한다.

회차별 2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스테이지 투어는 관객이 아닌 연주자의 시선에서 콘서트홀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롯데콘서트홀 무대감독이 직접 인솔해 약 한 시간 동안 총 8개 공간을 살펴본다. 참가자는 무대에 올라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를 체험할 수 있고 연주자가 사용하는 분장실과 악기보관실, 리허설룸 등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피아노 악기 보관실에서는 2억 원 상당의 스타인웨이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 4대와 8억원 상당의 이동형 오르간 콘솔 1대도 확인할 수 있다.

### 봄맞이 3개 테마로... 예술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예술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가 봄을 맞아 3가지 테마로 관객들과 만난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13일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를 시작으로, 15일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토요콘서트', 28일 'KT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클래식'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13일 11시 콘서트는 지휘와 리코더

협연을 동시에 선보이는 김민석과 2015년 오스트리아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차지한 첼리스트 조형준, 프라임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무대를 채운다. 남미의 에너지와 바로크 시대 속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마르케스 '단손 제2번'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심포니 댄스' 등을 연주할 예정



이다. 공연 예매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인터파크 등에서 가능하다.

### '문학동네 소설상' 박선우 작가 '어둠 뚫기' 출간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래서 나와 엄마 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엄마를 이해해보고 싶었다."

제30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인 박선우 작가의 '어둠 뚫기'가 출간됐다.

책은 저자가 2022년 펴낸 소설집 '햇빛 기다리기'에 수록된 단편 '겨울의

끝'을 확장했다. '겨울의 끝'은 삼십 대 남성이 삶에서 겪는 여러 부침과 엄마와의 끈끈한 애증 관계를 펼쳐낸 작품으로 저자는 이에 더해 사랑과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를 추가했다. 괴롭고 힘든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왜 계속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고 평했다. 177~178쪽 /뉴시스

## 주말은 책과 함께

# 인간·사회의 공정함은 양심서 출발

얼마 전 애를 낳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포착했다. 그는 아기에 대해 "너 임씨야, 이씨야? 임씨지? 임마 딸 맞지?"라는 질문을 해냈다. 갓난쟁이는 엄마 속을 아는 지, 모르는지 빵싹빵싹 웃고만 있었다.

친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길래 연유를 물었다. 억울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열달 동안 힘들게 품었다가 낳은 건 저인데 왜 남편 성을 붙여 불러야 하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니 참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다들 당연한 듯 아버지 성을 물려받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양육의 9할 이상을 어머니가 맡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 한국은 호주제 폐지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나라가 됐지만, 자신의 성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긴 어렵다. 왜일까.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쓴 '양심'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책에는 그가 호주제 폐지 운동에 가담했다가 겪은 고초들이 기록됐는데 참담하기 그지없다.

1999년 최 교수는 한 강연에서 "자연계를 오랫동안 관찰해 봤지만, 그곳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다"며 "만약 자연계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호주는 당연히 암컷이다"고 말했다. 짧은 발언



양심  
최재천, 팀최마준 지음/더클래스

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강연이 방영된 다음날부터 그의 연구실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고 끊는 통에 전화 코드를 뽑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쓰는 생활이 1년 넘게 지속됐다.

테러는 언어에 국한되지 않았다. 여론 신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 교수는 물리적인 폭력에 당했다. 갓을 쓴도 포차림의 노인은 최 교수의 중요 부위를 움켜쥐고 "달렸네. 그런데 왜 암탉한테 야망을 펴고 그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갓은 수난과 모욕을 겪으면서도 그는 '차마... 어차피... 차라리...'란 심정을 안고 양심이 이끄는 길로 몸을 틀었다. "차마 외면할 수 없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온몸으로 덤벼들자."

20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美소비자, 이미 고물가에 고통... "관세로 인플레이션 심화"  
▲대만 국책연구소 "TSMC 대미 투자로 삼성전자 걱정 가장 커" /사진 뉴시스

▲관세 전쟁 일으키더니... "美, 인도에 농산물 제외 무관세 요구"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핵역지력으로 유럽 보호할 것"

▲머스크, 사립대 예산 지원 비판하며 "김정은도 배워야"  
▲美, 우크라이나 무기 이어 '정보 공유'도 중단... 전방위 압박